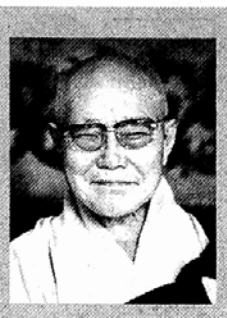
보경스님은?

선-교 능통한 선지식
한암스님 18년간 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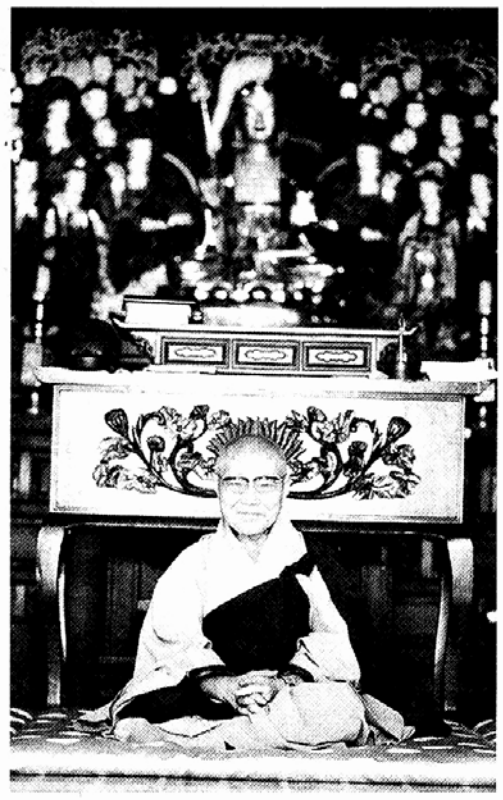
보경스님은 선교에 두루 능통한 선지식으로 통한다. 근세의 대 선지식인 한암스님을 18년 간이나 모시고 산 스님답게 계율에 철저하고 경전과 한문에도 능하다.

스님은 1919년 4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1934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했으며, 1935년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42년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1년에는 삼척 영은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94년부터 보광명사에서 회주로 계신다.

스님의 성격이나 취향은 엄격한 수행정신과는 정반대다. 권위의식이 없고 평등한 심성으로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항상 웃는 표정이어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 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든 호되게 꾸지람을 내린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40년 이상 보경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탄허불교문화재단 김회순 위원장은 보경스님을 일컬어 '아름다운 스님'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기본도리를 중시하고, 한국불교의 앞날을 염려하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전했다.

스님은 평소 공부하며 많은 저술을 했으나, 출판을 하자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과 한평생 살았으면 됐지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출판을 거절하는 이유다.



◇보경스님은 단 하루도 참선과 경전공부를 거르지 않는다. 불자들에게는 항상 '진짜 자기'를 찾으라고 강조한다.

로 오다산 상원사에 가게 됐고 한암스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그때만 해도 세상에 불평이 많았어요. 있는 집 자식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득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 주신 분이 바로 스승인 한암스님이셨습니다. 어느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높은 대로 바다는 깊은 대로 평등한 것이다. 오리의 다리는 짧은 대로 평등한 것이고 황새의 다리는 긴대로 평등한 것이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면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불평을 하게 된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황새의 다리를 잘라 붙일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요. 나는 그 순간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평등한 것이라.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하며 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부귀빈천으로만 본다면 어찌 평등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달랐다. 왜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하느냐는 것이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 육도가 모두 평등합니다. 왜 평등합니까. 모든 것이 업따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만 하면 그 업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있는 대로 봐야 하고, 거기에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불평해야 할 것은 내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광명사에는 양어장 외에 과수원과 밭이 있는 것이 독특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고추, 콩, 상추, 아욱,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었고, 배나무와 호두나무도 있었다. 스님은 겨울철만 빼고는 늘 이곳에서 산다. 요즘에는 배나무를 솎아주고, 고추 심는 일 때문에 낮시간을 거의 전부 이곳에서 보내다시피 하고 계셨다. 세속 나이로 83세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스님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50년이 넘게 실천해오고 있다. 1951년 삼척 영은사 주지 때부터 스님은 한시도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늘 작업복 차림이다. 원래 격식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수행자의 본래 모습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젠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수행이 힘들다고 안하면 그게 어디 수행자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지혜는 고(苦)도 낙(樂)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예요. 힘들다고 푸념만 한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늘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참선을 근본으로 삼는 것도 자기를 열고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苦)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예요. 나의 스승이신 한암스님께서는 늘 제자인 탄허스님과 학문적인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두 분은 사제지간이면서도 학문적 주장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분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힘들다" 푸념만 하면 무엇을 얻겠어요

생각을 열어 놓아야 자기 바로보기 가능

보경스님은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예불을 올리고 법당 안에 마련돼 있는 두 스승의 영정에 매일같이 향 공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밭일과 함께 참선과 경전공부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종무도 손수 보신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일이지만 스님은 피로는 느끼지 않으신단다. 항상 생각을 가다듬으면 피로도 그만큼 덜 느끼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 다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초발심자경문〉에 지범개차(持犯開遮)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계율을 잘 지키되, 지키고, 못 지키고, 방편으로 삼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못 지킨다는 것은 계율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범하는 것이라면 어찌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말씀 끝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다. "악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선입니까"

"선악의 중심은 모름지기 자기에게 있어요. 선한 마음이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을 선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과보는 그대로 남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들려주실 말씀 한 마디를 부탁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요청대로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극락에 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문득 사방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향기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싱그러움과 푸름이 묻어나는 것 같다. 새가 향기로운 소리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듣는 것인가. 보경스님을 뵌 탓일까. 고추를 심어야 한다며 발길을 돌린 150 센티미터도 채 안될 것 같은 단구의 보경스님이 왜 그리 크게 느껴졌을까.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정원스님 (3)

80년대 초 문경 김용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정원스님을 모시고 산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할 뜻을 세웠다. 전국 사찰 중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찾던 중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김용사를 1순위로 점찍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우연찮게 김용사 주지가 교체되었다. 그래서 정원스님을 김용사 주지로 모시고 영진, 정각, 순민 스님 등과 내가 주축이 되고 우리와 뜻을 함께 했던 스님들 10여 명이 모여 원대한 뜻을 세웠다. 스님께서는 청소년 포교만이 미래 한국불교를 담보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우선 2만여 평의 토지를 우리가 직접 경작하기로 하였다. 백장청규를 규범으로 하여 낮에는 들에 나가 일하는 것으로 정진을 삼고 밤에는 좌선정진을 하였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상시 개설하여 전국각지에서 온 수련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했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단순한 농사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만여 평의 농토와 그 주변산지에 호두와 대추 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해 가을부터 겨울동안 나무심을 구덩이를 3m 간격의 바둑판 모양으로 한자 깊이씩 미리 팠다. 다음해 봄에 호두와 대추 나무

낮엔 일하고 밤엔 좌선정진
말로는 매몰차도 속깊은 정

를 심었다. 스님께서는 가끔씩 해이해지려하는 우리들을 불같이 꾸짖으셨다. 새벽예불이라도 한번 빠지는 날에는 불벼락이 났다. 젊은 놈들이 스스로 세운 원력을 못 견뎌하는 것은 신심이 없는 탓이라며 당신이 먼저 앞장섰다. 휴식시간에 치라며 탁구대를 사오기도 했다. 일도 같이 했지만 운동도 같이 했다. 젊은 시절 테니스선수였던 스님은 탁구도 선수 수준이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운동할 때의 자상하고 인정스러움은 잘못을 꾸짖고 지적할 때와는 너무 달랐다.

그러던 어느날 사단이 났다. 스님께서 대중가운데 한 명이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이전부터 담배냄새가 난다며 몇 차례 불은 적이 있었다. 다들 그렇지 않다며 숨기고 있었는데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수행자가 담배 하나 끊지 못하면서 무슨 청소년 교화를 하느냐며 당장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불같은 성화가 계속되었다. 할 일 없어 주리가 틀리는 것들이나 늙어서 심심해지면 피우는 것이 담배인데, 출가 수행하는 놈이 생돈 없애며 건강 해치고 냄새 피우는 짓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이다. 그 도반도 만만치가 않았다. 아직은 끊을 생각이 없으며 또한 그일 때문에 나갈 생각도 없다고 맞섰다.

급기야 담배문제로 대중공사를 하게되었다. 대중공사란 스님들이 전래적으로 하는 독특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원칙적인 법이나 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상황에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흔히 작용하게된다. 즉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원칙적인 법이나 윤리관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담배문제로 대중공사를 하게된 우리는 몇 시간동안을 옥신각신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수련원 설립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주요역할을 하는 대중이 빠지게되면 본래 목적한 우리의 취지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도반스님을 이 상황에서 내보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전체대중들이 며칠 동안만 담배를 다 같이 피우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다보면 더 이상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주지스님께서도 탓하지 안 할 것이고 이 문제는 개인문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대중공사의 결론은 며칠 동안만 모든 대중이 담배를 피우기로 결



정 났다. 소위 무모한 집단 투쟁이었다. 스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더이상 탓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오는 신도들에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잔머리를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한다, 멍해진 머리를 순간적으로 돌리게 하는 각성효과가 확실히 있다, 우리 절 젊은 스님들도 모두 담배를 피우면서부터 머리가 비상해졌다고 했다. 우리는 완전한 KO패를 당했다.

그 무렵 신흥사사태로 인해 종단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져 비상종단이 출범하게됐다. 그 여파로 우리도 불가피하게 김용사에서 나오게되었다. 3년 동안 대중들이 땀으로 일구던 수련원 설립의 꿈도 함께 깨졌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사망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스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부덕으로 모처럼 젊은 원력들이 결사하여 종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기회를 잃었다며 지금도 아쉬워하신다. 수행자는 세인들의 귀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야한다고 늘 강조하시는 스님. 누군가 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 "거저 신심 없고 어름한 것들이 병나지야 신심있고 부지런하면 어드래서 병날 시간이 있갔어"하고, 말로는 매몰차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속 깊은 인정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다. ▩정취암 주지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 직지사 · 월정사 · 화엄사 · 선암사 · 금산사 · 선운사 · 마곡사 · 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컷 수록)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 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해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세계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시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연을 영구히 남깁니다.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 × 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화기 수록)
○ 장정: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연구원